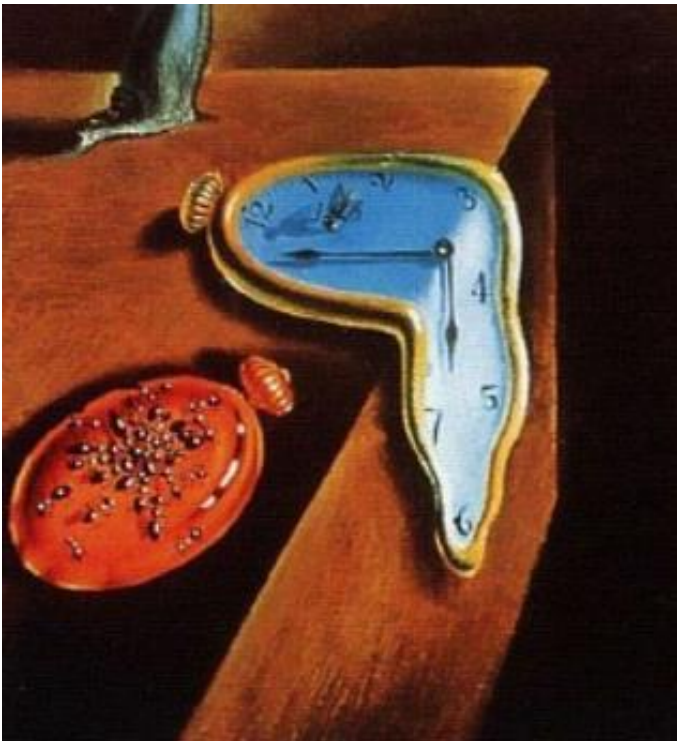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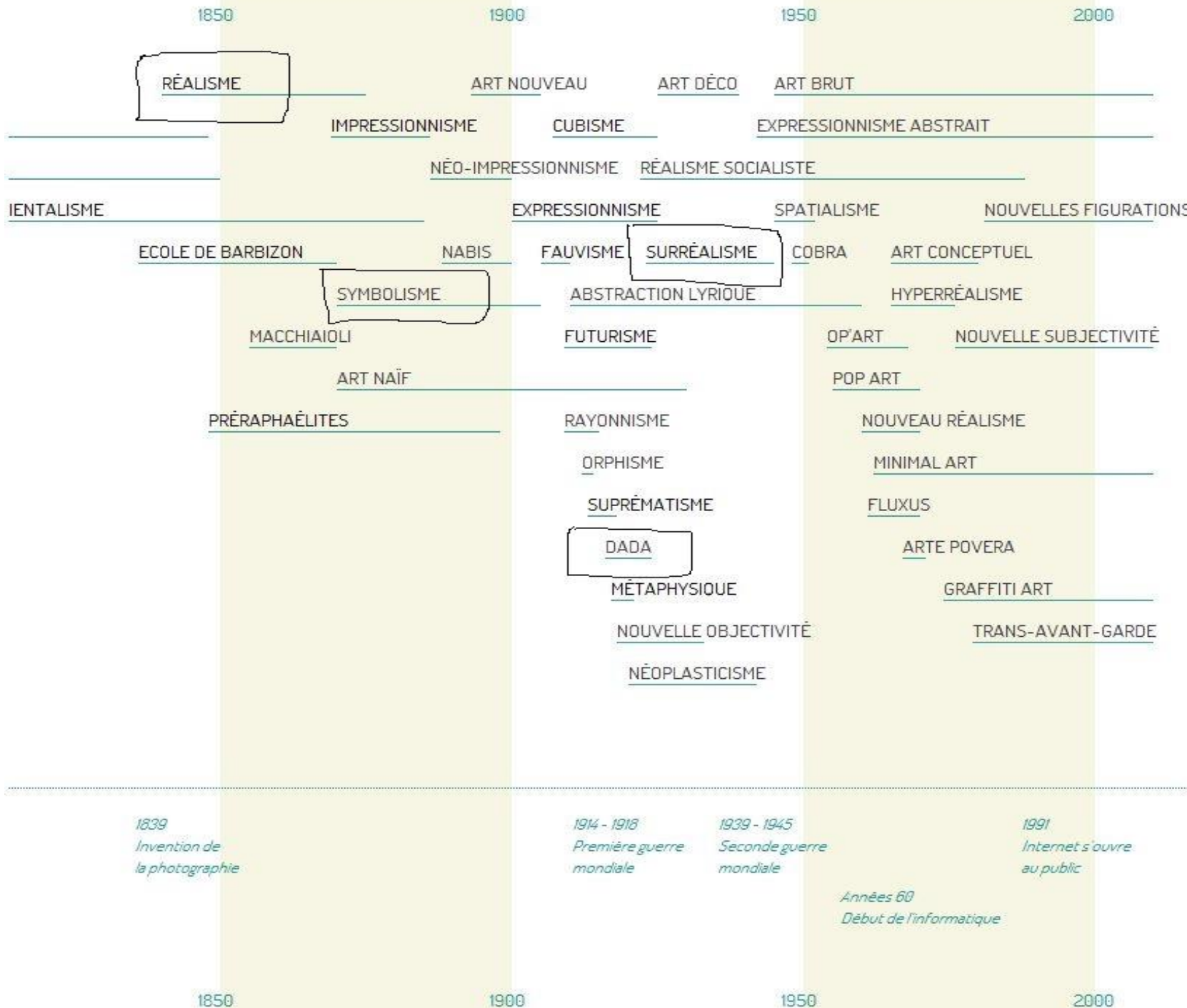


# 프랑스 영화 탐색 강의

- 제2차아방가르드(초현실주의) 영화 미학 -



# 서구 예술사조의 흐름



# 초현실주의의 흐름: 초자연주의

“예술로 따지자면 나는 <超自然主義者 surnaturaliste>이다. 예술가가 자연에서 그 모든 유형들을 다 발견할 수는 없지만, 가장 괄목할 만한 유형은 사상 개념의 본유적 상징 체계처럼 즉각적으로 그의 영혼 속에 계시된다고 나는 믿는다.”

- 하이네, <프랑스에 관하여>

초현실주의 토대:

시적 상징주의-프로이트의 심리분석-맑스의 계급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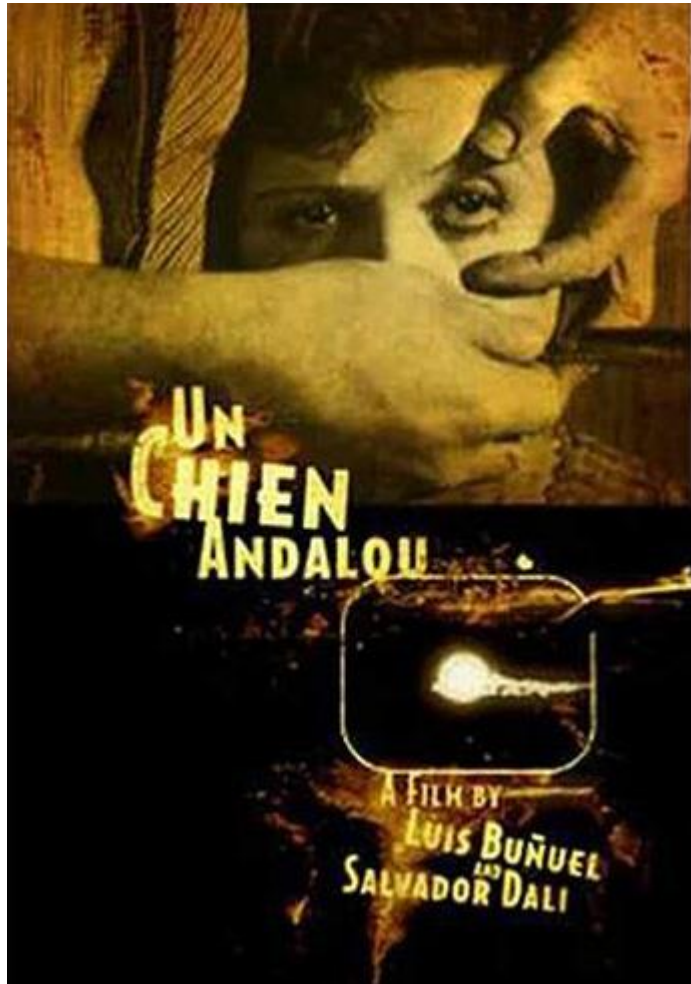
## 초현실주의 선언

“삼라만상은 우리로 하여금 모순적으로 인식되던 삶과 죽음, 실재와 상상, 과거와 미래, 소통과 소통 불가능이 더 이상 모순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정신의 어떤 지점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한다...”

“꿈과 현실의 접점으로서의 절대적 현실이 곧 내가 정복하게 될 초현실이다”

- 앙드레 브르통

# 안달루시아의 개 **Un Chien Andalou**



감독	<a href="#">루이스 부뉴엘</a>
제작	루이스 부뉴엘
각본	루이스 부뉴엘, <a href="#">살바도르 달리</a>
출연	루이스 부뉴엘, 살바도르 달리
음악	루이스 부뉴엘, <a href="#">리하르트 바그너</a>
촬영	<a href="#">알베르 뒤베르제</a>
편집	루이스 부뉴엘
배급사	Les Grands Films Classiques
개봉일	<a href="#">1929년 6월 6일</a> (프랑스)
시간	16분
국가	<a href="#">프랑스</a>

# 총체적 기이함

## 비논리적 구성-현실과 상상, 시공간의 무경계

- 시놉시스: 한 남자의 무절제한 욕망을 거부한 여인이 다른 남자를 찾아 가지만 함께 생매장됨
- 스토리텔링의 소멸: 주인공 남녀와 실내 공간의 일관성 외에는 내러티브 논리 소멸, 한 마디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
- 예상치 못한 오브제와 인물이 등장하고 소멸 반복, 관객의 상상력과 추억에 의거하여 자유롭게 현실성 부여: 어린 시절의 추억거리, 개미, 권총, 피 흘리는 당나귀 시체, 양성구유인(兩性具有人, hermaphrodite), 주인공에게 죽은 주인공의 분신, 열정적 절름발이, 결박된 신부
- 공간의 무분별한 이동: 실내, 거리, 숲, 해변을 오감
- 자막으로 알려 주는 시간의 무분별한 이동: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현재: 새롭게 만난 남성과 행복한 커플을 이룬 여인, 봄이 되어 함께 모래에 산채로 묻혀 벌레들의 먹이가 됨

스토리텔링 및 관련 영화 정보 자신의 감상과는 아무 의미 없음, 이미지들의 관계를 보는 관객의 상상력만 의미를 지님

# 달리와 브뤼엘의 꿈 이야기

달리: "밤에 개미들이 손바닥에서 꿈틀거리더군."

브뤼엘: "난 누군가의 눈을 썰고 있더군."

자동기술법

**automatisme**

이성이나 의식에 지배  
되지 않고 무의식 가  
운데에 화필을 자유롭  
게 움직여서 그리기

우아한 시신

**cadavre exquis**

**exquisite corpse**

한 사람이 그림, 문장  
의 일부를 만들면 그  
다음 사람이 이어서  
완성하는 그림 놀이

- 예를 들어 자신을 범하려는 남자에 맞서 테니스 라켓을 쥔 여인, 무엇인가를 찾으려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남자 말이야
- 그가 무얼 보았는데
- 날아가는 두꺼비
- 아닌데
- 코냑 한 병
- 아니고
- 로프 두 줄
- 굿, 그런데 뭐가 달렸나
- 어떤 사람이 그걸 끌다 넘어져. 무척 무거운 걸 끌다 말이야
- 넘어지는 거 좋구먼
- 로프에는 커다란 마른 호박 두 개가 걸려 있어
- 다른 건 없나
- 성모 마리아회 수사 둘
- 또 다른 건?
- 대포
- 그건 아닌데, 고급 소파가 있어야 해
- 아니, 그랜드 피아노
- 베리 굿
- 그리고 피아노 위에 당나귀 한 마리, 아니 썩은 놈으로 두 마리
- 훌륭해! 다시 말해서 비합리적 이미지를 내 놓아야 해, 아무 설명 필요 없는 이미지들 말일세. →영화감상

# UN CHIEN ANDALOU

Version Intégrale sonorisée  
© 1960 - Les Grands Films Classiques

d'après un scénario  
de *Salvador Dali*  
et *Louis Bunuel*.

Mise en scène  
de Louis **BUNUEL**

avec  
*Simonne MAREUIL*  
et  
*Pierre BATCH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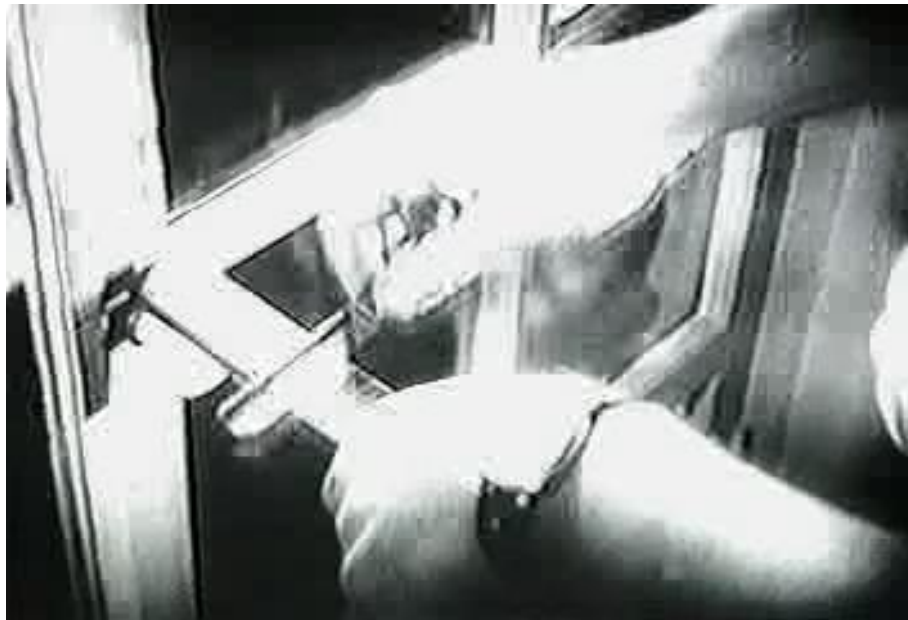
Prise de vues: *DuVerger*.



옛날 옛적에...

Il était une fois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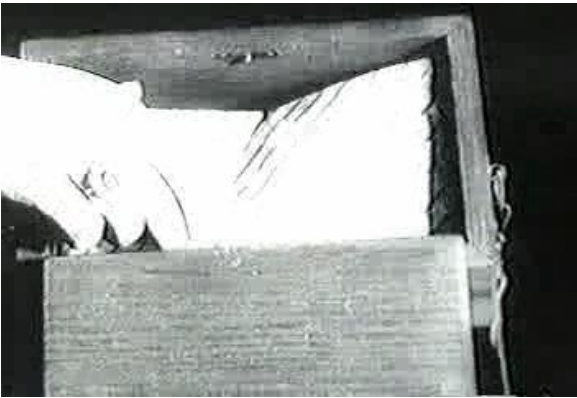




# 8년 후

Huit ans aprè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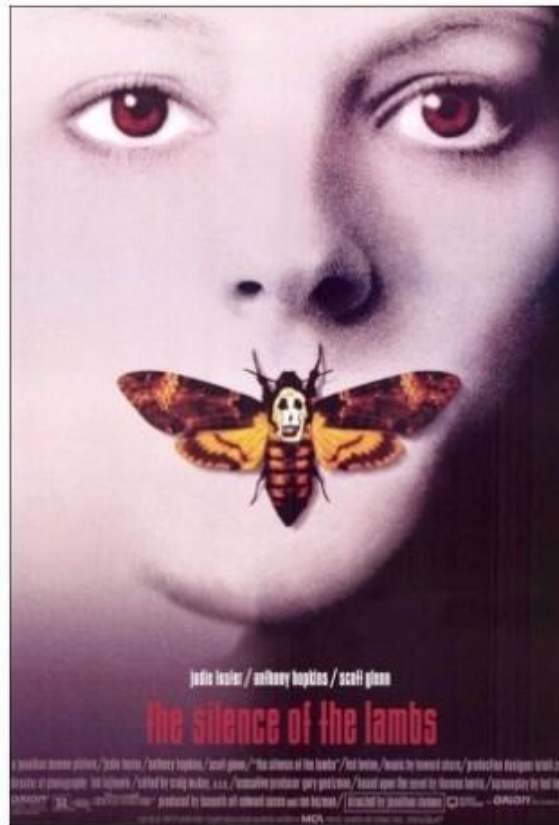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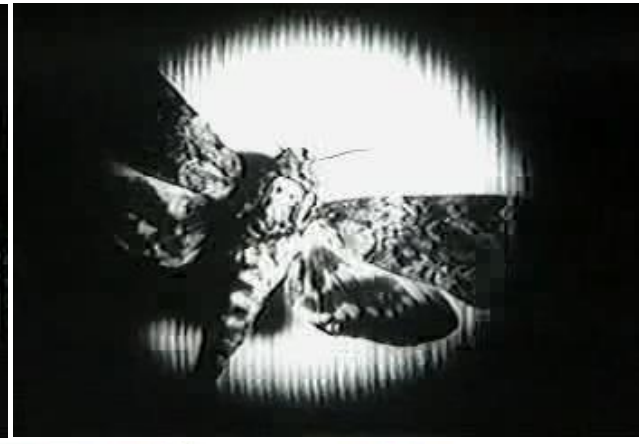












SILENCE OF THE LAMBS ONE-SHEET



DEATH'S HEAD MOTH BLOWUP



ORIGINAL DALI PORTRAIT

봄이 되니

*u printemps.*

IN SPRING...



# 초현실주의 감독들과 그 영향

장 콕토 **Jean Maurice Eugène Clément Cocteau, 1889~1963)**

시인 소설가 극작가 영화감독, 1917년 사티-피카소-디아길레프와 <파라드>, <지붕 위의 황소> 초현실주의 시·음악·회화·무용을 통섭. 1930년부터 영화 오르페우스 삼부작, <오르페우스>, <시인의 피>, <오르페우스의 유언> 및 <미녀와 야수> 감독

제르멘느 뒤희락 **Germaine Dulac**

제1차아방가르드 작품에 이어 제2차아방가르드 앙토넝 아르토 희곡 <껍질과 성직자 La Coquille et le Clergyman> 영화화

얀 슈반크마예르 **Jan Svankmajer**, 발레리안 보로브지크 **Walerian Borowczyk**

1960년대 체코와 폴랜드의 애니메이션으로 부활, 발레리안 보로브지크와 얀 슈반크마예르의 다양한 현대적 기법의 애니 제작, 세계 영화사에 명성을 남김

루이스 브누엘

브누엘은 1972년 '부르주아의 은밀한 매력'(Le Charme discret de la bourgeoisie), 1977년 '욕망의 모호한 대상'(Cet obscur objet du désir)으로 한국 시네피에게도 대가의 인상을 남김